

# 김 “방식 논의” vs 한 “경선 집중” ... ‘빅텐트’ 온도차

〈문수〉

〈동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힘 경선 2강 압축...오늘 양자 토론 후 다음달 3일 최종 후보 발표 ‘한덕수와 단일화’ 입장, 결선 변수로...탈락자 지지층 표심 향배 관심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은 김문수·한동훈 후보의 양자 대결로 좁혀졌다.

김·한 후보의 최종 경선은 30일 한 차례 토론회 후 이틀간 당원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거쳐 오는 5월 3일 결과가 발표된다.

두 후보는 경선 내내 계엄·탄핵 책임론 공방을 이어가면서 공약, 도덕성, 본선 경쟁력 등을 두고 더욱 뚜렷해진 대치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 측은 이날 경선 탈락으로 정계은퇴를 선언한 홍 후보의 지지층과 당내 ‘반(反)한동훈’ 당원들의 표심이 자신에게 결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표 시절 당정 갈등을 빚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한 후보를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두면서 당심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심을 결집해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 측은 역시 경선에서 탈락한 안 후보 지지층이 한 후보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 후보의 4강 진입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중도층의 경선 영향력이 입증된 만큼 결선에서도 중도층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찬탄 대 반탄 구도를 ‘쇄신 대 구태’ 구도로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비상계엄 당시 내각의 일원(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 수 있다’는 게 핵심 구호다.

결선에 당심과 민심이 5대5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기존 탄핵 찬반 구도를 넘어 상대 지지층을 향

한 ‘쟁탈전’도 치열할 전망이다.

김 후보는 경제·청년 공약을 통해 중도 확장성, 한 후보는 국방·안보 공약을 내세워 보수 선명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지지세 확장을 위해 경선 탈락자인 안 후보를 향한 ‘러브콜’ 경쟁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대선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두고 미묘하게 다른 두 후보의 입장이 주목된다.

향후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성의 기초가 될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두 후보의 태도가 결선 투표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두 후보 모두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적극성에서 차이가 있다.

김 후보는 경선 주자 중 가장 먼저 한 대행과 단일화를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잡음’ 없는 단일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으로 단일화를 이뤄낸 ‘노무현-정몽준’식 단일화 방식을 제안한 상태다. ‘담판’을 통해 한명을 추대하는 방식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참여하는 ‘반명 빅텐트’ 구상에 호응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일대일 구도를 원하는 보수·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포석이다.

한 후보는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경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후보 측은 한 대행을 포함해 당 밖의 다른 후보들과의 단일화에 대한 당원들의 기류를 면밀히 파악한 뒤 단일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수도권 과밀 문제, 전략과 집중이 해법”

한국지방신문협회 대선후보 공동 인터뷰 - 국민의힘 한동훈

전국에 5개 메가폴리스 조성

탄핵 찬성은 국민에 대한 의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발전 문제를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본인의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광주일보 등 9개 지역 대표 언론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지역 균형발전론에 대한 비전과 지역 공약 등을 공개했다. 다음은 한동훈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전략과 비전.

▲5대 메가폴리스 구상을 발표했다. 핵심은 제대로 된 산업 유치다. ‘규제제로특구’는 국가전략 5대 산업분야(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에 대응하는 특구로, 이미 일정 수준의 기반이 갖춰진 도시를 선정해 그 안에서는 관련 산업분야 규제를 완전 철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규제제로특구에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투자하면, 양도세를 5년 이상 투자자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자 전액 면제하는 ‘조세제로펀드’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집중’이 일어나게 하겠다.

-대선에 도전하는 각오는.

▲시대교체를 약속드리며 이번 대선에 출마했다. 계엄으로 탄핵된 대통령의 자리를 30년의 출판 탄핵을 한 야당 대표로 채우는 ‘공수교대’ 여신 안 된다. 수명을 다한 87체제의 문을 닫고 정치교체, 세대교체를 포괄하는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시대교체는 정치가 본래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다. 시대교체를 통해 그런 정치를 끝내고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치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평화로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릴 수 있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탄핵에 찬성했다는 보수의 지적에 대해서는.

▲역으로 묻고 싶다. 그분들은 그럼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국민의힘 당대표였다면 계엄을 저지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계엄은 결코 2시간짜리 해프닝이 될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의 의리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의리가 먼저여야 한다. 그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그분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위험한 사람이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세상을 막겠다는 제 마음은 정확히 같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과거로 보내드리고,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저 한동훈은 이기는 선택이다.

-‘반명 빅텐트’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는.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법치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재명 괴물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다같이 뭉치는 데에 방법의 제한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국민통합 방안은.

▲정치의 극단적 대립이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87체제가 전제된 ‘절제’가 무너져 수명을 다하면서 극단적 대립이 극심해졌다. 30년의 출판 탄핵과 계엄은 그런 절제가 무너진 결과다. 결국 수명이 다한 87체제를 끝내고 개헌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교체’만이 해법이다. 계엄을 한 대통령의 자리를 30년의 출판 탄핵을 한 야당 대표로 채우는 것은 ‘공수교대’에 불과할



뿐, 극단적 대립의 정치는 더 극심하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개헌과 시대교체를 통해 여야가 ‘정치’를 해야 하고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극단적 대립의 정치를 마감해야 진정한 의미의 국민통합도 가능하다.

-여소야대 정국 어떻게 풀 것인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전쟁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그 전쟁 같은 선거가 끝나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점도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다. 저는 당선되면 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라도 개헌과 시대교체를 이루겠다고 처음부터 약속드렸다. 이 ‘임기 3년 단축 개헌’이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의 골조를 트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야당으로서도 5년 후보다는 3년 후에 재도전의 기회를 얻기 원할 것이므로 당연히 개헌에 동참할 유인이 있다. 정치 복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사진=경인일보 김우성 기자

## 홍준표 “정치 안 하겠다” 정계 은퇴

국힘 대선 2차 경선 탈락...‘모래시계 검사’로 부상 후 30년 여정 마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 시장은 29일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며 정계은퇴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차 대선 경선 결과가 나온 뒤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소시민으로 돌아가 시장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이로써 홍 전 시장의 30년 정치 인생도 이번 대선 도전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홍 전 시장(사법연수원 14기)은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 슬롯머신 업계 비호세력 사건을 수사

하면서 6공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전 전 의원을 구속, 일약 스타 검사로 부상했다. 이 사건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 ‘모래시계’가 인기를 끌면서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한 뒤 18대까지 내리 4선을 했고, 21대까지 5선 의원을 지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당 대표, 경남도지사를 역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패배했다. 홍 전 시장은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두고선 대구시장직을 사퇴하고 출마하는 배수진을 쳤으나 고배를 마셨다.

/연합뉴스

#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록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